

# “100% 국내산 식재료 ‘강진 목은지’ 김장합니다”



정성 가득한 어머니 손맛을 담은 ‘강진 목은지’가 표준 매뉴얼을 준수

### 관내 17개 업소 오는 31일까지 김장 완료...숙성 작업 후 판매 시작 사전 표준 매뉴얼 정립 상품성 있는 가정식 목은지 생산 기반 마련

해 김장에 들어갔다. 목은지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강진군은 관내 17개 업소에서 6일부터 목은지 김장에 들어갔다. 오는 31일까지 김장을 완료하고 숙성작업 후 판매를 시작한다. 특히, 군은 사전에 표준 매뉴얼을 정립하고 책자를 배부해 상품성 있는 가정식 목은지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 준수사항으로 강진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국내산 식재료를

100% 사용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도 준수한다. 현행 배추김치(목은지) 원산지 표시 기준은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품목을 표시하고 추가로 고춧가루와 소금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11월 30일 사업참여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목은지 사업참여자 교육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전산 교육장에서 개최해 강진 목은지 준수사항과 통신판매업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앞으로 목은지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사전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완료하게 해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상품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 목은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내 사업자는 17명으로 영업 신고를 완료했다. 지금까지 강진군에서는 4차례에 걸쳐 사업참여자 교육을, 전체 사업설명회 및 교육을 총 3회 실시했다. 각종 사업과 능가별 영업 신고 등록을 연중 추진해 강진 목은지 육

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군은 목은지 산업화를 통해 목은지를 맛의 1번지 강진의 관광상품으로 특화해 6차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강진산 목은지에 대한 전국 인지도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로 ‘목은지’하면 강진이 떠오를 수 있는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건강한 목은지를 판매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강진 목은지는 1kg 1만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목은지 주문 및 안내는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 061-433-8844, 080-434-2070)로 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군 원격 화상진료 등 의료취약지 지원 성과 빛나

우수기관 선정...건강증진개발원장상

완도군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성과 공유대회’에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하였다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임하연 신지 동고보건진료소장이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하였고, 소안 횡간·신지 동고·청산 모도·고금 덕동·군외 고마·금당 삼산 보건진료소장 등 6명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 완도군, 실내정원 조성으로 치유·휴식·관광 효과 특출

###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2곳

완도군이 공공시설인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과 산단시설인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등 2곳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치유, 휴식, 관광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벽면 형태의 실내 정원인 ‘스마트 가든’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마트 가든’은 공공시설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내 공간과의 조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벽면 형태로 설치된다. 특히 테이블아자, 스킨답서스, 스파

트필름 등 실내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관리가 쉬운 식물로 구성되어 제한된 실내공간에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원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화 관리 기술을 통해 관수 및 생장 조명 등을 제어하여 식물의 생육을 원활하게 하고, 유지 관리 또한 편리하다. 한편 한국정원디자인 학회가 2017~2019년 수행한 도시 생활인을 위한 치유·휴식·관광용 정원 연구개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가든은 10분 체험한 후 긴장, 우울, 분노, 피곤, 혼란,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김광수기자

##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2021년 입주작가 3명 모집

### 등단 3년 이상 10년 이내 작품집 발간실적 있는 누구나 가능



해남군은 2021년 문학창작공간인 ‘백련재 문학의 집’에 입주할 3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백련재 문학의 집은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문인들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입주작가들이 생활하게 될 문학창작공간은 총 8실(다용도실 포함), 개별 약 19.44㎡의 규모로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모집분야는 시(시조), 소설, 수필, 평론, 번역, 희곡, 아동 및 청소년이며 모집인원은 총 3명이다. 등단 3년 이상된 자로 10년 이내 작품집 발간실적이 있는 기성작가나 작품계획서와 등단작가 혹은 지도교수의 추천서 제출이 가능한 예비작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작가는 일체의 시설비용을 면제 받으며 월1회 결과물(원고)을 제출하면 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접수받으며, 실제 입주기간은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특히 2021년 입주작가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자신의 작품세계와 저서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및 땅끝순례문화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산윤선도 유적지내에 위치한 백련재 문학의 집은 현재도 박병두(시나리오작가), 정택진(소설가), 이은유(소설가), 송기원(소설가), 이지담(시인), 채길순(소설가), 황지우(시인) 등 유수의 작가들이 머물며 집필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장흥군은 2020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분야 ‘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3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친환경농업을 군정 역점 업무로 선정하고, 유기농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유기인증면적이 2,080ha로 목표 대비 16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해 주요 농자재 구입비의 100%를 지원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농업인 역량 강화사업 추진 등 친환경농업 시책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다. 기동취재본부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